

# 올 충장축제엔 서커스도 등장한다

### 동구, 개막 50여일 앞두고 기본 계획 발표 외발자전거·저글링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올해 충장축제에서는 서커스를 만날 수 있다. 동구는 23일 개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5회 추억의 충장축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축제는 '추억, 세대감'을 주제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다. 서커스 콘셉트를 도입,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서커스적 요소를 반영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동구는 개막식 주무대 주변을 서커스장 분위기로 조성하고 거리퍼레이드에 외발자전거·저글링·대형피에로·이색 퍼레이드 카를 등장시킬 예정이다. 거리 곳곳에는 마술공연 및 체험, 버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동춘서커스 초청공연은 '태양의 서커스단'을 벤치마킹해 단순한 기예를 넘어 스토리텔링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추억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도된 '정바지' 드레스코드는 올해 조형물·디스플레이·청사초를 활용해 상징성을 강화하고 ▲정바지 리플 공연 ▲정바지 서포터즈 ▲정바지 플래시몹

등 관객들을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준비했다. 또 올해 축제는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청년의 거리'를 충장로4·5가 일원에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로 꾸밀 예정이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 충장축제의 기본계획이 23일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충장축제 모습.

과거 대학가요제 명곡을 다시 부르는 '대학가요제 리턴즈'는 실제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들의 기획공연과 심사참여로 전문성을 높이고 전국단위 참가자 모집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충장축제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아시아푸드페스티벌을 연계해 아시아의 맛과 멋을 느끼고, 다양한 국가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존'을 운영해 아시아대표거리축제를 알린다.

원에서 세계적인 현대미술축제인 '2018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점을 감안, 먹거리 부스를 최소 운영하는 대신 관람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깨끗하고 품격 있는 축제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제15회 충장축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 충장로·금남로·예술의거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자치구 대표 거리 시, 5억 투입조성

광주시가 각 자치구에 대표거리를 조성한다. 각 자치구별 주민 주도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들 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23일 "주민 스스로 대표거리를 조성하고 아이템을 발굴, 주민공동체 및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 5억원을 투입해 5개 자치구별로 1개씩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학운동 이팝나무거리를 조성하는데 야간경관 개선 및 보행 환경 정비에, 서구는 농성2동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포토스팟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각각 예산을 투입한다. 남구는 양림동에 3·1 만세운동 태동지 역사문화길을, 북구는 용봉동 로고거리를 조성하고, 광산구는 디자인 블록 및 벤치를 설치해 월곡동을 걷고 싶은거리로 만들 방침이다. 시는 올 상반기 보조금을 모두 교부하고 최근 주민설명회 등을 마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복적복적 공유장터' 내일 남구서 펼친다

#### 광주공유센터, 불필요한 책 나눠읽기 등 다채

광주공유센터의 '올라올라 공유장터'가 '복적복적 공유책장'이라는 주제로 25일 오후 광주시 남구 광주공유센터에서 펼쳐진다. 23일 센터에 따르면 매달 책을 매개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불필요한 책을 가져와 필요한 책으로 바뀌는 '공유 책장'을 선보이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책장 한 칸을 분양해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기부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한 칸 책장'을 선보인다.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된 책장에 더 이상 읽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들을 기부해 공유할 수 있다. 또 명사들의 책장을 통해 명사들이 평소 소장하는 책을 빌려가야 필요한 책으로 바뀌갈 수도 있다. 동화작가를 초청해 저자와 교감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복적복적 콘서트'도 펼쳐진다. '못 말리는 카멜레온' '이

승사자의 타임포켓'의 윤미경 작가를 초청해 동화책의 탄생 과정과 그림책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동화책과 관련된 노래와 율동을 배워볼 수 있다. 이번 아니라 광주공유센터 일대에서는 활쏘기 대회 등 전래 놀이와 공유 부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진다. 재능기부로 펼쳐지는 우쿨렐레, 난타,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 무대도 만날 수 있다. 베틀시장과 플리마켓 장터도 열려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공유센터(714-1365)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9월 아동수당 신청 독려 활동

광주시는 9월 첫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아동수당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독려활동을 펼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접수받고 있는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로 소득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으로 광주지

역에서는 7만1297명이 해당된다. 시는 전체의 96.6%(8월 14일 기준)에 해당되는 6만8932명의 신청을 접수받아 전국 최고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첫 지급일은 9월 21일이다.

시는 미신청자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과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도록, 신청 절차를 기재한 아동수당 안내문을 곳곳에 비치하고 미신청가구 우편 재발송, 문자 및 전화 등을 이용해 독려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북구,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시스템 구축

광주시 북구가 채무증가, 금융정보 부족, 낮은 소득·신용등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나선다.북구는 23일 "저소득·저신용 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북구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2일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양방향 민원처리 시연과 운암시장 상인 간담회, 업무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복지행정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달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접수받은 내용을 확인해 개인별 소득과 신용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과 금융지원, 취업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고금리 부채 서비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 소액대출, 무료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양 기관 간 촘촘한 연계망으로 서민금융·복지 잠재 수요자를 발굴하고 상담과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복지 시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 호남권 보건환경연구원 3곳

### 감염병 검사분야 공동대응 다자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호남권 보건환경연구원 3곳과 감염병 검사분야 공동대응을 위한 다자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조영관 원장,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박중수 원장,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오상실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질병관리본부 후원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됐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메르스 등 해외유입감염병 및 지역사회 감염병 집단발병에 따른 공동대응 ▲매개체 관련 감염병에 대한 공동 연구추진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BL-3) 등 보유시설 및 장비의 상호간 활용이다.

올림픽 당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한 뒤 노로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제기되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회 성공 개최에 도움을 줬다. 호남권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번 협약 체결로 2019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 규모 경기 개최 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관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호남권역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감염병 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연구원 상호 간 인적·물적지원으로 실험실진단 분야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 주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생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태풍 복상대비 시설물 긴급 점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2일 제19호 태풍 '솔릭' 복상에 대비, 전역 사 및 기지사업소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김성호 사장과 각 부서장들은 태풍 취약시설인 역사 주변 배수로 및 지하터널 내 배수펌프 가동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각 역사와 인접한 굴착공사 현장 등을 세밀히 살피는 등 재난대응 태세에 나섰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교육상담학 전공)	31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